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슴을 지닌 여자

〈편집실〉

11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

진료 15분만에 수술대에 누운 나는 곧 닥칠 우리아기의 탄생에 대한 기대와 불안 등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빠 진행되는 수술실의 상황에 그만 얼이 빠져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일주일 내내 격심한 두통에 시달린 나는 마침 쉬는 토요일이라 집에 있던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혈압 160~190mmHg, 단백뇨, 심한 부종, 한치 앞도 희미한 형편없는 시력, 전형적인 임신중독증이었다.

경추마취를 하자 이내 복부에 둔감하나 툭툭하고 자르는 듯한 느낌이 있는가 싶더니 수술실에 불이 켜졌다.

곧 무엇인가 물컹하고 빠져나오는 듯한 느낌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아이의 모습이 보였고 나는 지구 희미해지는 시력의 초점을 맞추려 안간힘을 썼다.

힘차고 양칼진 울음소리... 여자아이였다. 임신 38주 정상분만이었으나 성윤이는 엄마의 병으로 인한 영양결핍으로 2.36kg의 아주 작고 마른 아기로 세상의 빛을 보았다.

수술이 끝난 후 지옥 같은 고통의 56시간을 보낸 후 난 성윤이를 다시 볼 수 있었다. 가느스름한 목덜미, 약해 보이는 어깨... 그래도 아이의 눈빛만은 그 어떤 아기보다도 또렷했다.

그러나 그 또렷한 눈매 때문에 남편과 나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결국 울고야 말았다.

저렇게 뽀뽀한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울음이 멈추지를 않았다. 막내로 자라 아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나를 보고 친정엄마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네 자식 낳으면 실컷 주물러라.”

우리 성윤이를 보니 주무르기는커녕 만지기도 겁이 날 정도였다.

그런 나를 더욱 절망 속으로 몰아간 것은 제왕절개수술로 인해 먹은 진통제와 항생제 때문에 모유를 못 먹이게 되었다는 생각이었다.

분유로 자란 다섯 조카를 보면서 늘 나는 아기를 낳으면 ‘모유를 먹여야지’ 하면서 남 몰래 다짐하곤 했다.

사람이 사람의 아이를 낳았으면

당연히 사람의 젖으로 키워야지 왜 송아지의 먹이인 소젖으로 아기를 키운단 말인가!

그것도 1등급원유가 아닌 2등급원유로 만든 분유를 먹는 것에 대해 늘 불만이 많았기에 내아이 만이라도 꼭 젖을 먹고 싶었다.

임신을 하자 모유를 먹이겠다고 매일 샤워 할 때마다 1분간 가슴마사지를 열심히 한 것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것만 같아 정말 마음이 무던히도 상했다. 그런 나의 마음에 더욱 상처를 준 사람은 다름 아닌 친정엄마였다.

몸에 비해 상당히 큰 가슴을 가진 나에게 늘 쓸모없는 젖 때문에 옷맵시가 나지 않는다고 구박하던 엄마. 그 말에 난 나중에 “아기한테 젖 많이 먹



이런 되잖아요” 하고 반박이라도 할라치면 엄마는 코방귀를 핑하고 끼시고는 “너는 너 할머니 가슴 닳아서 젖 잘 안 나올 꺼다. 너 할머니 젖이 모자라 아버지하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도 나중에 안나 오는 젖 먹인다고 고생하지 말고 약 먹고 젖 말려라. 그리고 요새 분유가 얼마나 잘 나오노.”

젖 못 먹이게 되었다고 속상해 하는 내게 엄마는 늘 하시던 그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셨다.

그런데 입원한지 4일째 되는 밤 갑자기 가슴이 묵직해지기 시작하더니 가슴에 커다란 불덩이 하나를 올려놓은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엄마 엄마…”

견뎌보려 했지만 너무나 격심한 고통에 보호자 침대에서 자고 계시던 엄마를 깨웠다.

엄마는 놀라 간호사에게로 달려가셨고 이내 간호사가 오더니 젖이 돌기 시작하니 젖을 짜주라며 병원 유축기를 빌려주었다.

그리고 초유는 아이에게 매우 중요한 영양성분과 면역성분이 들어 있으니 짜서 신생아 실로 넣어 주라고 했다.

나는 그 고통의 와중에도 “제왕절개로 항생제와 진통제를 맞았는데도 젖을 먹일 수 있나요?” 했더니 간호사는 맑은 웃음을 지어 보이며 “어머님! 물론 소량의 약물이 모체를 통해 젖으로 아이에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은 매우 미약해서 아이에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걱정 마시고 많이 짜서 아이에게 많이 먹여 주셔요.” 나는 왜 간호사를 백의의 천사라고 하는지 그때야 그 말의 진의를 깨달았다.

그러나 과연 젖이 많이 나올지… 또 하나의 걱정이 밀려오는 가운데 나는 병실 한 구석에 앉아서 젖을 짜기 시작했다.

역시 엄마의 말이 맞았다. 젖은 잘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고통이나 없애보자는 생각에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두 번째 아기를 낳은 옆 침대의 아주머니께서 젖꼭지를 한번 비틀어 보라고 하셨다.

아직 길이 뚫리지 않아 그러니 비틀어 젖이 나오는 길을 뚫어주라는 얘기였다.

원래는 아기가 빨면서 되는데 아이가 없으니 그렇게 라도 하면 된다는 얘기였다.

시키는 대로 하니 거짓말처럼 젖이 쪽쪽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80ml나 짜졌다.

옆에서 지켜보시던 우리엄마 “아이고 야 젖이 이렇게나 많나 세상에 장담할 일 없다 하더마는 니가 인제보니 니 할매 젖을 닳은 것이 아니고 내 젖을 닳았네.” 하시며 나보다 더 기뻐하시고 고마워 하셨다.

난 투명한 젖병에 연한 개나리 빛의 초유를 80ml나 짜서 신생아 입원실에 넣어 주었다.

인큐베이터에는 안 들어갔지만 몸무게가 너무 작아 혹시나 하는 염려로 성윤이는 여러 가지 검사 중이었다.

지루한 병원생활에 이전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다. 또 하나 나를 기쁘게 한 것은 하루에 한번 아침 9시에는 아기에게 직접 수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어서 시간만 가거라 하고 일곱 시간을 애타게 기다려 제일 먼저 신생아실에 신청을 했다.

이내 간호사가 나오더니 손을 씻고 교육부터 받으라고 했다.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손을 씻었다.

그러나 나는 퐁퐁 불은 가슴을 안고 병실로 돌아와 유축기를 아이로 삼아 젖을 짜야했다.

입원한 아기에게는 직접 수유를 할 수 없다는 병원 규칙 때문에 나는 성윤이를 보지도 못하고 뒤 돌아 섰던 것이었다.

그렇지만 난 이내 마음을 털었다. 그래도 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고 있다. 아이는 알 것이다.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너에게 젖을 먹이기를…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본문은 우리 협회에서 실시한 엄마젖이 최고 대국민 홍보작품 수기 부분 황금상에 입상한 최희연씨의 작품을 실은 내용입니다.